



2019년 3월 24일(제921호) 시순 제3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오늘 제1독서와 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인가요? 제1독서에서는 모세가 등장하고, 복음에서는 포도 재배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 일까요?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저번 주 강론 때도 ‘중재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번 주에 언급한 ‘중재자’에 대한 모습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했었지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중재자’의 모습은 제삼자로서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의 해결을 조정해주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제1독서에 등장하는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느님 사이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계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했으며, 또 이스라엘인들이 저지른 죄와 허물에 대해 자신이 대신 하느님께 빌고 간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복음에서는 포도 재배인이 아름다운 중재자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위해 그는 주인에게 1년만 더 참아 달라고 애원합니다. 만약 이 중재자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와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뿌리째 뽑혀 태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3년 동안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그 무화과나무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3년이 아니라 벌써 수십 년 동안 기다리셨지만, 그때마다 실망하게 해 드린 무화과나무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벌 받지 않고, 뿌리째 뽑히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 착한 포도 재배인 때문은 아닐까요? 곧, 우리를 위해 빌어주고 있는 중재자 때문은 아닐까요?

## “중재자”

그렇다면 중재자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 이쁨받는 사람? 하느님 마음에 속 드는 사람? 하느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 죄 하나 없는 깨끗한 사람? 글썄요. 혹시 ‘마중물’이라는 걸 아십니까? 옛날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올리던 시절,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에 마중물을 넣어야 했지요. 마중물을 넣을 때 어떤 물을 쓰나요? 깨끗한 물을 쓰나요? 물론 깨끗한 물을 써도 되겠지만, 어떤 물을 써도 상관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통해 우리는 저 깊은 땅속에 있는 깨끗하고 생명수와 같은 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보면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느님께서 펌프에 부으심으로써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재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러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중재자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앞에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활동하는 그런 ‘착한 포도 재배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철(필릭스) 신부  
비행(25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탈출 3,1-8ㄱ.13-15

**회 답 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 2 독 시**

1코린 10,1-6.10-12

**복음 관 호 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복 음**

루카 13,1-9

**영 성 제 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송 베드로



성인명: 송 베드로 (宋 Peter)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821-186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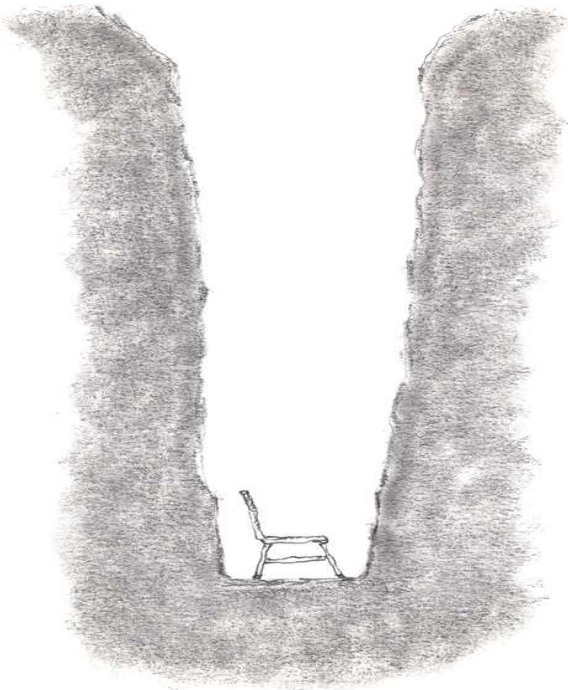
송(宋) 베드로는 충청도 충주 서촌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장성한 뒤에는 부친 송 베네딕토를 모시면서 성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열중하였다.

송 베드로는 부친인 송 베네딕토와 함께 가족을 데리고 진천 배티 교우촌으로 이주하여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1866년에 병인박해가 일어났고, 이듬해 봄에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러 다니던 한양 포졸들이 배티로 들이닥쳤다. 배티로 몰려온 포졸들은 그곳에 거주하던 송 베드로의 가족 모두를 체포하여 진천 관아로 압송하였다. 그런 다음 경기도의 죽산 관아로 끌고 가서 가두었다가 다시 한양으로 이송하였는데, 이때 체포된 이들은 송 베드로와 그의 부친 송 베네딕토, 그리고 그의 딸과 며느리 이 안나, 이 안나의 아이 등 모두 5명이었다.

송 베드로는 한양으로 압송된 뒤에 신앙을 굳게 지킨 다음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67년으로 그의 나이는 46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만남의 장

이 깊은 어둠에서  
만나게 될 당신  
그리고  
당신을 닮은 이.

깊은 곳에  
그물을 치라고 했던  
바로 그이와의  
만남의 장소.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주님.

상화이야기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



니콜라스 프로방, 1476년경 완성  
나무 위 유희, 410x305cm / 엑상프로방스 대성당, 프랑스

이 그림의 상단에는 불타고 있는 나뭇가지가, 하단에는 천사와 놀라 신발을 벗고 있는 모세와 그가 치던 양 떼들이 그려져 있고, 중앙의 작은 둔덕에는 모세의 지팡이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그려져 있다.

물론 성경 말씀에는 하느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오지만, 화가는 본 제단 화가 안치될 성당이 가르멜 수도회 성당이며, 특히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두터운 주문자가 자신이 문힐 경당에 걸릴 제단화라는 것을 알기에 복잡한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도상학적으로 불타고 있는 나뭇가지는, 불에 타고 있지만 타서 재가 되어 소멸하지 않는 신성한 기적이기에 성모님의 무염시태, 즉 동정성을 상징한다. 또한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따 먹는 지식의 나무는 성모님을 상징하는 장미가지가 뒤엎킨 나무로 표현되었고, 본 나무의 과실은 우리를 죄에 빠트리는 사과가 아니라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이 상징하는 구원이다.

이러한 원죄와 구원에 대한 대비는, 천사의 가슴에 장식된 브로치에 원죄의 상징인 아담과 이브가 그려져 있으며, 이는 성모님의 무릎에 앉은 아기 예수님이 들고 있는 거울에 비친 성모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한다는 내용과 맞닿는다.

얼핏 보면 매우 간단한 그림이지만 이렇게 복잡한 상징성과, 지면이 모자라 미처 설명하지 못한 미사와 대축일 기도문을 표현한 라틴어 문구들에서 이 그림이 동시대인들에게 매우 다층적으로 읽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몇백 년 전 중세인들은 우리보다 불편한 삶을 영위했을지 몰라도, 영성과 지식 면에서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시순 제3주일: 남성대 히탈리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교회의 2019년 춘계 정기총회  
때·곳: 3월 25일(월)~29일(금), CBCK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